

연대·통합... 오월 영령 추모·정신 계승 계속된다

SOCIETY

2025년 5월 20일 화요일

오늘 민주기사의 날·24일 청소년문화제·27일 부활제 전국서 사진전시회·헌화·체험 나눔행사...추모 열기 ↑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지난 18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엄수된 가운데 오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추모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남은 일정은 올해 5·18 기념식의 핵심인 '오월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포함한 민주주의의 공고화, '5·18 미래세대의 계승·연대', '오월가치 확산' 등에 집중된다.

19일 제45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펼쳐진 5·18 전야제와 시민난장, 민주평화대행진에 이어 18일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

등을 끝으로 올해 5·18 관련 주요 추모 행사가 대부분 마무리됐다.

남아 있는 오월 행사는 오는 20일 계엄군의 만행에 분노한 택시 기사들이 차량 시위를 벌였던 '민주기사의 날', 27일 민주주의를 외치며 옛 전남도청에서 산화했던 오월 영령을 위로하는 '부활제' 등이다.

'민주기사의 날'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운수 노동자들이 버스

와 택시를 이끌고 전남도청으로 진격, 계엄군에 저항한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기리기 위해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지역 택시기사들은 20일 오후 3시부터

태극기와 5·18 45주년 기념 깃발 등을 부착하고 북구 임동 무등경기장에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까지 차량 행진을 하며 신군부에 맞서 시민군과 함께 투쟁했던 버스·택시 기사들의 모습을 재현한다.

5·18시민군의 최후 항쟁일인 5월27일에는 5·18민중항쟁 45주년 마지막 공식 행사인 '부활제'가 열린다.

부활제는 옛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을 상대로 마지막까지 항쟁하다 희생된 오월 영령을 추모하고 이들의 정신과 가치를 기리기 위해 1984년부터 해마다 5·18기념행사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다.

오월 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행사는 종료됐지만 오월의 역사를 알리고 미래 세대에 5·18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들은 계속된다.

24일 오월정신을 계승하고 청소년의

민주시민 의식을 높이기 위한 5·18청소년문화제가 금남로 일원에서 열린다.

청소년문화제는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인 민주·인권·평화·나눔의 공동체 가치를 역사의 현장인 금남로에서 청소년들의 시선으로 다양한 끼와 열정으로 표현하는 참여형 민주주의 축제다.

지난해에 이어 '오월 정신 미래세대로의 전승'을 위한 청년기획사업인 '청년 PM'도 운영된다.

올해 선정된 임채민 PM이 '청년, 오월을 이어적다'를 통해 웹툰, 전시, 음악, 연극으로 청년들의 오월을 표현한다.

5·18정신에 대한 철학적 고찰과 함께 사회대전에 대한 학술 발표, 토론 등 '사회 대전환, 나침반으로서 5·18' 학술대회가 전남대 일원에서 오는 22~23일 열린다.

이 자리에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민주화 시대의 단계적 전환과 민주진보의 행로', 광주 연구 공동체 광주 모더니즘 김만석씨가 '혁명적 트래저' (가칭), '오월정신 계승'을 주제로 박용구 전남대 교수의 발표가 진행된다.

또 다채로운 시민들의 공모 사업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도 사진 전시회, 헌화, 체험 나눔행사 등이 운영되면서 오월 추모 열기를 이어간다.

5·18행사위 관계자는 "5·18을 추모하는 기념식은 종료됐지만 오월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사업은 지속된다"며 "다양한 행사들이 시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구성된 만큼, 오월 영령을 기리고 45년 전 오월의 광주가 보여줬던 연대와 통합의 정신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예보 05:25 달맞이 01:04
맑음 19:33 달맞이 11:45



광주	☀️	20~29
목포	☀️	18~25
여수	☀️	18~23
순천	☀️	18~26
구례	☀️	18~30
광주	☀️	17~26
임도	☀️	18~26
흑산도	☀️	15~21
진남	☀️	17~26
고흥	☀️	17~26
진도	☀️	17~25

목포	밀물(고)	07:12 / 19:22
	썰물(저)	12:48 / --:--
여수	밀물(고)	02:01 / 14:29
	썰물(저)	08:40 / 20:23

소방관에 배달... '노쇼' 사기

경찰이 급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를 진압 중인 소방관을 사칭한 '노쇼' 사기 피해 수사에 나서.

광주 남부경찰은 지난 18일 남구 한 음식점 업주 A씨로부터 소방관을 사칭한 신원 미상 인물에게 속아 20여만원 상당 피해를 봤다는 신고를 접수.

A씨는 화재 발생일인 지난 17일 "김치점 15인분, 공깃밥 17개를 진화해 한창인 급호타이어 광주공장으로 보내야 한다"는 주문 전화를 받아.

소방관들을 위한 음식이라는 말에 저렴한 가격에 결제를 하려 했지만, 주문자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A씨는 다음 날인 18일 인근 파출소를 찾아 신고.

경찰은 공공기관이나 특정 인사를 사칭해 저임금자를 노리는 전형적인 '노쇼 사기'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시민단체 "한빛원전 납품부품 전수조사를" 재발 방지 대책 지켜지지 않아...요원 증원 강조도

영광 한빛원전에 납품된 설비 부품이 꺾동으로 밝혀진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납품부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영광해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9일 영광군청 등에서 '납품부품 전수조사 실시', '품질보증서 위조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성명서에서 "국내에 원전이 도입된 지 50년이 지났는데 도입 초기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벌어졌다"며 "배터리 꺾동 부품 납품, 결선 오류에 의한 방사전 감시기 미작동 방출 사태, 제어 카드 이상에 따른 비상시절발전기 기동사건, 화재 사건 등은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수명연장을 추진 중인 한빛1·2

호기 경우 꺾납 건물에 76cm의 대형 구멍을 비롯해 수천 개 구멍이 발견됐고, 외벽 또한 철근이 노출되는 등 수많은 부실 공사가 확인됐다"며 "3·4호기는 꺾납 건물 수증기 대형 관통부 하부에 깊이 157cm, 높이 90cm, 넓이 331cm의 대형 구멍이 발견됐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품질성적서 위조 사건, 제어봉 조작 실패에 따른 열출력 급증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품질관리요원을 2명에서 8명으로, 교수요원을 2명에서 14명으로 늘려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부실공사와 부실운영, 부실규제 등에 따라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을 특별조사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08@gwangnam.co.kr



형형색색 수국 '활짝' 19일 나주시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에서 전남도가 개발·육성한 수국 신품종이 공개됐다. 농업기술원은 수국 신품종 관련 차원에서 원예연구소를 오는 21일까지 개방한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호남대, 'RISE 사업' 5년간 682억원 확보

연간 137억원 규모... 11개 단위과제 수행 계획 '착착'

호남대학교가 광주시 주관의 '2025년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에 선정돼 연간 136억5000만원, 전체 사업 기간(5년) 총 68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호남대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특성화된 교육 및 연구를 통해 지역 발전과 혁신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할 주요한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호남대는 RISE 사업에서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광주전략산업 허브대학'비전과 '지역 산업 연계 맞춤형 특성과 전략 강화'의 두 트랙 전략을 강조했다.

특히, 미래모빌리티, 문화콘텐츠, 헬스케어 분야에서 AI와 ICT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해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와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또 글로벌 역량을 갖춘 평생교육을 확대 위해 성인 학습자와 외국인 유학생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공동체 가치 창출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앞장서 나간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번 RISE 사업에서 호남대는 지역 맞춤형 융합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11개의 단위과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며, 광주의 전략산업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 구축에 기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과제로는 △광주형 로컬 커스터마 이징 청년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광주 창업밸리스 타트업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창업 생태계 활성화 △R&D 기반 혁신 실증 스튜디오 운영으로 실증 연구와 기술 개발을 지원해 지역 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

또 △도시 캠퍼스 리브랩 운영을 통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며 △광주 문화예술·관광 도시 활성화 과제를 통해 광주의 문화·예술·관광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

박상철 총장은 "첨단산업 분야의 고급 인재 양성과 창업·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통해 광주의 전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광주교육청 조직개편... 교육 사각지대 해소

인성생활교육과·광산교육지원센터 신설

광주시교육청이 분청 '인성생활교육과'와 서부교육지원청 '광산교육지원센터'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담은 '광주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광주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이 지난 331회 임시회를 통과했고, 이에 따른 시행규칙은 19일 법제심의의를 거쳐 20일 19일 밝혔다.

신설되는 시교육청 인성생활교육과는 생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부서다. 앞으로 인성교육, 마음건강, 심리정서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맡는다. 또 대안교육 기능을 광주시교육청시민

협력진흥원에서 이관받아 학교 밖 청소년 증가에 적극 대응한다.

교육지원청이 없는 광산구지역에는 광산교육지원센터가 광역시 단위 최초로 지원센터로서 문을 연다.

광산교육지원센터는 하남3지구에 개소하며, 광산구지역 평생교육, 유치원, 국제교육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조직개편을 반영한 기구 및 정원과 관련한 시행규칙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시교육청은 인성생활교육과 신설과 광산교육지원센터 개소 등을 통해 교육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금호타이어 화재현장 '온정의 손길'

"따뜻한 한끼"... 빛나는 '광주 공동체' 정신

인근 식당 무료식사... 광산구 자원봉사센터 등 온정 손길

"불, 연기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방대원분께 작은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진압을 위해 사흘째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방대원을 돕기 위한 광주 공동체 정신이 빛을 발하고 있다.

19일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공장. 전날까지 진เพลิง 진화를 마무리하지

못한 소방대원들은 등이 뜨지마자 바쁘게 움직였다. 쉽게 꺼지지 않는 잔불을 잡기 위해 인간힘을 쓰고 있었다.

소방대원의 얼굴은 별칭에 익어 있었으며, 굵은 땀방울로 가득했다. 화재 진압 도중 공장 내부에서 들려오는 '타타타 쿵, 쿵' 소리에 사선이 집중되기도 했다.

다행히 주불을 잡았지만 이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36개 구획으로

나뉜진 3층짜리 공장 건물 내부 곳곳에 도깨비불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공장 전면부에서 약 60~80m 떨어진 곳에서 잔불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대원들은 진화 작업과 함께 인근 공기업 관리와 유해물 확산 방지도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수라장이 된 화재 현장의 소방관을 돕기 위해 시민들도 두 팔을 걷어붙였다. 이날 인근 한 식당 출입문에는 '경찰·소방관 무료 식사 제공'이라는 문구가 붙었다. 현관문 앞에는 "화재 진압에 힘쓰시



광주 광산구자원봉사센터 직원 150명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발생 첫날인 지난 17일부터 텐트 1동을 치고 소방관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는 경찰·소방관들께 식사를 제공합니다" "월요일 점심부터 식사가 가능하니 꼭 오세요"라는 글이 적힌 종이 부착됐다. 금호타이어 화재 현장에서 진화작업에 나서고 있는 소방·경찰관들을 위한 물품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 광산구자원봉사센터 직원 150여 명은 화재 발생 첫날인 지난 17일부터 텐트 1동을 치고 소방관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주먹밥 250분과 생수 300개 등을 지원했다. 인근 대형마트에서는 생수 1000개를 광산구에 보냈다.

이튿날에는 고려인마을에서 고려인 빵 200개를 후원했다. 인근 교회에서도 두 유 300개를 보냈다.

신가동 주민자치회와 월곡2동 31동 통장도 구청 공무원 격려 커피 50잔과 바나나 6박스 보냈다. 하남동 자율방재단도 캔커피 250개를 전달했다.

북구도 마스크 2800개를 전달, 온정나눔에 동참했다. 또 소방관용 수분 보충제, 커피면과 빵·과자 등을 보내며 응징을 나눴다. 임정호 기자 jh4415@yhb9792@